

• 10 월 속회: 마음의 뿌리

1. 환영과 인사: 속장

2. 찬송: 이 세상 험하고 (새 263/통 197)

3. 시작 기도: 속장 또는 속원

4. 감사의 고백과 나눔: 속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난 한달 동안 감사했던 내용이나 감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대해 나눕니다.

5. 성경읽기: 마가복음 7:14-23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6. 본문의 내용

본문은 앞선 1-13 절의 논쟁을 이어받아, 예수님이 더 나아가 진정한 정결함의 기준을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정결 규례(손 씻기, 음식)와 달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18-19 절에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개역개정)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으로, 구약의 음식 규례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음식 자체에 있지 않고, 20-23 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개역개정)이라고 구체적으로 열거하십니다. 여기에는 나쁜 생각,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사기, 방탕, 악한 시선(질투), 모독(비방), 교만, 어리석음 등 인간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온갖 악한 마음이 포함됩니다.

본문은 진정한 더러움은 외적인 행위나 환경(먹는 음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인 율법 준수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내면의 정결함이 참된 신앙의 본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초점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 옮겨가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7. 나눔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음란, 탐욕, 교만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죄는 말과 행동으로 보여지기 이전에 이미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예배 참석, 봉사, 직분 등)에만 관심을 갖고, 내면의 모습(평안/불안, 기쁨/불평, 감사/원망 등)에는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불안, 불평, 원망 등이 아니라 평안, 기쁨, 감사 등으로 채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마음의 뿌리'를 건강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8. **합심기도:** 함께 나눔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속장 또는 속원이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9. **주기도문:** 다같이